

이스라엘 역사와 성서이해23

문서 예언서의 태동

-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들

이스라엘	유다
아모스(750년경) 호세아(745년경)	이사야(742-700년경) 미카(722-701년경)

아모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예로보암 2세의 재위 시절

➡ 대표적 표상 →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산 사람들"(아모6,1)

물질적 풍요와 발달한 문화적 업적

아름다운 상아 궁, 화려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3,1), 인상적인 요새, 장터

"주 만군의 하느님의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자만을 역겨워하고 그 성채를 싫어한다. 나는 성읍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넘겨 버리리라."(아모6,8)

문서 예언서의 태동

화려한 부의 중심지로서의 사마리아

하맛 어귀에서 아라비아해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되찾고,
엄청난 양의 부를 축적하게 됨. 무역과 상품 교환으로 부를 이루고
시리아, 아라비아의 대상통로를 장악



극심한 부의 편재현상이 발생(양극화)

경제적 폭군들이 불의한 재판관들의 승인 하에(5,10-13) 은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궁핍한 사람을 사는 등(8,6; 2,6)의 사회적 현상이 나타남. 나봇의 포도밭 사건처럼 부의 축재를 위해 부정과 불법이 만연한 것

문서 예언서의 태동

현실에 대한 이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석을 계약신앙에 대한 등돌림으로 해석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의 인간 관계로 해석하는 것

아모스 예언자

드고아(예루살렘 인접도시)의 목자

→ 예후 왕조 이후 정치적인 측면에서 남북 관계가 멀어졌지만
민간의 교류, 계약 백성으로서의 유대는 남아 있었던 것으로 이해

신앙을 선포하는 예언자임과 동시에 시대를 읽는 예언자(아시리아)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선포하고, 계약을 살아갈 것을 요구

→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명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문서 예언서의 태동

민족의 멸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사치와 탐욕 속에서 편안히 누워 살아가는(6,1-7)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을 질타하고 모든 불의들이 죽을 병(계약에 대한 소명의 포기)의 징조라고 표현.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 치워라. 너희의 수금 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5,23-24)

➡ 민족들이 형식적으로 바치는 제사를 부정하고, 냉혹하게 성소들을 공격

야훼 하느님을 이스라엘의 복지를 이해 이용하는 자연신의 개념을 배척하며, 역사의 하느님을 기억, 상기하고, 하느님과의 친밀한 계약 관계 안으로 다시금 들어갈 것을 요구

문서 예언서의 태동

이방신의 제의적 관습에 물들어 버린 백성들이 야훼께 대한 진실한 제의와 율법의 요구를 되찾아야 하며, 이를 정화 해야 한다고 주장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올바른 관계 정립이 그들의 삶을 뿌리 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해했기 때문

심판을 선고하고 회개(참회)를 요구한 예언자

→ 야훼께 돌아옴을 요구하며, 돌아옴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계약신앙의 충실함으로 회귀하여 삶의 방식을 개혁하는 것으로 표현

그릇된 낙관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그 목적은 회개에 있었다.

문서 예언서의 태동

호세아 예언자

예로보암2세 → 즈카르야(6개월) → 살룸(1개월) → 므나헴(10년)
→ 프카흐야(2년) → 페카(20년) → 호세아

단순한 암흑과 심판의 날만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복구와 쇄신의 약속을 선포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야훼의 끊임없는 사랑

혼인생활에서 발견한 예언자의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

한 여인(고메르)과의 결혼

이즈르엘 로 루하마 로 암미

간음한 부인과 그에 대한 예언자의 해석 →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
들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
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 짓을
하기 때문이다.”(1,2)

문서 예언서의 태동

자신의 혼인 생활을 야훼 하느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해석

이스라엘과 야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결혼이 가진 의미를 발견
“이스라엘이 야훼를 저버림으로 인해 수많은 간음을 저질렀다.”

북부 전승에 익숙한 호세아(E, D)

이집트, 광야, 호렙산의 계약, 가나안 점령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해석한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

광야에서 맺어진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역사적인 결혼에 대해서 자신과
아내의 혼인생활을 해석하고 계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 선포

사회, 정치,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뛰어 넘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간에
담겨 있는 동기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주목함

문서 예언서의 태동

왕정 자체를 비판(8,4)

“그들이 임금들을 세웠지만 나와는 상관 없고 대신들을 뽑았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찾은 왕조 교체를 바라보며, 하느님과의 계약을 저버린 삶의 결과로
➡ 해석하고(7,3-7),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려고 하였다가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

계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 성실한 사랑이 없음을 가장 커다란 문제로 삼지만, 결국 하느님의 충실한 사랑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장엄하게 전달

관계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함과 진실함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를 대면하는 마음가짐이다.

문서 예언서의 태동

너희의 **신의**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 같다.(6,4)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 아는 예지다.(6,6)

→ 역사(기억)에 의지하여 하느님과 의 역사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삶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예언자의 핵심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야다(4,1; 6,11)와 신의가
필요하며, 이것이 호세아 선포의 중심에 있다.

‘얌’은 하느님의 선택에 대한 인정과 승복,
동시에 마음을 다하는 의지로서의 충실함을
포함하는 계약의 본질

문서 예언서의 태동

하느님의 분노는 구원을 위한 발판. 분노의 목적은 치유와 참된 자유의 회복

→ 거짓된 가치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계약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예언자의 외침



하느님의 분노를 진정한 '사랑', 희망을 자아내는 빛으로 설명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광야로 인도하여 나갈 것이며,
그곳에서 새롭게 희망의 문을 열어 계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삶을 만드실 것

야훼 하느님과 첫 사랑의 장소
광야의 계약 신앙으로 회귀

남왕국의 예언자

전승 안의 예언자들 북왕국 위주

엘리아, 엘리사, 미카야, 아모스, 호세아

유다에도 예언운동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지만, 구체적 전승이 소개된 것은 문서 예언서 안의 이사야 부터 시작됨

이사야(예루살렘의 이사야-제 1이사야)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의 강력한 진군과 군사적 활동이 임박할 때 활동

40년 이상 예언 활동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음

우찌야 말년 → 요탐 → 아하즈 → 히즈키야

남왕국의 예언자

이사야의 활동 당시 가장 커다란 핵심 사건은 4가지

1. 아하즈왕 재위시절(기원전 735년경) **시로 에프라임 동맹**과 시리아의 멸망, 이스라엘의 국력 약화
2. 살마네셀 5세에 의해 이스라엘의 멸망(기원전 722-721년경)
3. 사르곤 2세의 팔레스티나 저항세력에 대한 전쟁(712년경)
4. 아시리아에 대항하려는 유다와 **산헤립의 침공**(701년경)

예루살렘 도시의 특권층, 다윗을 대표하는 왕조 신학을 강조.
다윗 계열의 메시아에 희망을 건 대표자

이사야의 소명사화(6장)

천상회의에 관한 이미지(표상)

거룩함에 대한 원초적 이해, 자신이 완전히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체험, 더러움 가운데에서 만난 하느님으로 인해 위기를 체험

남왕국의 예언자

거룩함에 대한 이해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 체험. 완전히 다른 존재와의 만남
정화사건-하느님의 은총을 만나는 사건(입술에 닿은 제단의 재)

→ 예언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요청에서
용서받은 자의 선포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6,8)

시로 에프라임 동맹

시리아와 에프라임의 동맹(서부 군소국가들의 연합체)

예후왕조를 끝낸 즈카르야를 암살했던 살룸을 밀어내고 1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므나헴은 아시리아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왕위를 유지했지만, 그의 아들 프카흐야를 암살하고 왕위에 오른
페카는 가나안 지방 군소국가들이 연합하여 아시리아에 대항(승리 확신)

남왕국의 예언자

요탐의 통치 이후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아하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분쟁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했음.

이방인들의 침입에 대해 자기 아들을 이방신의 관습대로 불에 살라 바치기(2열왕16,3)까지 한 아하즈는 정치적인 난제를 타개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들(스아르 야습-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을 데리고 온 이사야를 만나게 됨.

➡ 이사야는 신탁을 전하며,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
야훼를 믿고, 진정하라는 말씀

국제적인 분쟁의 틈에 말려들지 않아야 하며, 시로 에프라임 동맹군이 침략에 흔들리지 말고, 오롯한 야훼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선포

남왕국의 예언자

시로 에프라임 동맹을 “연기만 나는 장작 꼬트머리”라고 판단하는 예언자의 정세판단은 그들의 동맹으로서의 결속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것이었고, 예언자는 실제로 그 침략에 흔들리지 말라고 선포

온갖 이방신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안위를 살피려는 임금에게
➡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만이 시련의 시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알리는 것

아시리아라는 강대한 국가를 통해 동맹군이 분쇄될 것이라는 확신을 외치며, 아시리아를 지금의 정세에서 끌어들이지 말 것을 당부
➡ 징표를 요구하는 아하즈에게 임마누엘 신탁을 선포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7,14)

남왕국의 예언자

임마누엘 신탁에 대한 다양한 해석

1. 그리스도교적 해석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역사의 완성을 의미
(젊은 여인이라는 단어가 내포한 처녀성의 개념에 대한 해석)
2. 혼기에 찬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리라는 선언은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적인 사건 개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
3. 이후 다윗 왕좌에 대한 메시아적 선포와 함께 해석할 때, 유다의 다음 왕이었던 히즈키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심판의 칼날이 들이 닥치지만, 결국 임마누엘을 통해 빛이 비추어 질 것이라는 전승을 전하고 있다.

아하즈의 아시리아에 속국이 되는 선택 이후 이사야의 초기 활동이 끝남

자신의 신탁을 밀봉 한 후 예언자단으로...

남왕국의 예언자

이사야의 후기 활동

히즈키야 시대-2번의 아시리아에 대한 반란

가나안 지방의 1차 반란시 가담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만류(신탁)과
필리스티아의 완전 멸망 사건

바빌론의 므로닥 발아단 등의 협력 요청에 응대해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반란군을 형성한 히즈키야와 이사야의 신탁들(만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리아 역시
야훼의 독에 지나지 않는다는 예언자의 역사인식. 역사는 강력한 군사력,
정치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심판의 도구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오만한
아시리아가 결국 멸망할 것임을 선포

남왕국의 예언자

히즈키야에게 아시리아에 대항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야훼 하느님을 인간이 막을 수 없듯이 아시리아의 진격을
막으려 하지 말고, 정치적 동맹을 삼가 할 것을 주장(이집트, 므로닥 발아단)

“불행하여라,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 군마에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병거의 수가 많다고 그것을 믿고 기병대가 막강하다고 그
것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
도 않는다.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뿐 하느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
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31,1-3)

유다가 평화를 이룩하고 구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들이 취하는
정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도 돌아가(회개) 야훼의 주권을 믿고
기다린다면 때가 온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

남왕국의 예언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와 안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평온과 신뢰 속에 너희의 힘이 있건만 너희는 싫다고 하면서 '아닙니다. 말을 타고 도망하렵니다.'하고 말하였다.(30,15-16)

들으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충실한 남은 자들이 재앙에서
➡ 구출 될 것임을 확신한 예언자는 충실한 남은 자들을 모퉁잇돌로 삼아
'성실한 도시'를 만들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

세상의 것들에 치우치지 말고,

이스라엘과 세상의 왕인 야훼를 믿으라는 호소가 이 당시 예언자의 중심 사상

➡ 겸손(하쁘네아)를 강조

남왕국의 예언자

산헤립의 예루살렘 포위(36-39)

결국 반란군에 가담한 히즈키야에게 군사 행동을 취한 아시리아

아하즈 재위 시절 아시리아가 하느님의 분노의 지팡이라고 해석했던 것과는 달리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시리아가 패망할 것이라는 선포를 함.

나탄을 통해 선포된 다윗왕조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과 예루살렘의 왕조 신학을 해석한 이사야는 다윗 왕조에 대한 무조건적인 약속이었던 신탁이 유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시온이 살아남아 충실한 이들이 모퉁잇돌로 재건 된다는 사실을 선포.



충실한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온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자의 확신

남왕국의 예언자

히즈키야 시대 이후

이사야의 활동에 대한 전승은 소개되지 않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나쎄 시대에 순교 했다고 전해지지만 후에 이사야의 신학을 이어가는 제자들에 의해 자신의 예언자단에서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신학이 이어지며 이것이 제2이사야, 제3이사야로써 전승화 되어 남겨짐.

야훼의 남은 자들, 모퉁잇돌이 되는 이들, 시온을 통한 구원이라는 이사야의 신탁과 신학은 유배를 겪은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남왕국의 예언자

미카

농촌출신으로 지주들의 수탈에 고통을 당하는 농부들을 위해 활동을 시작
아시리아의 진격에 대해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선포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유다를 향한 하느님의 심판이 들이 닥칠 것

시온이 "피와 불의"로 세워진 도시(3,10)라고 해석하고, 잔인무도한 사회적 불의가 난무하는 곳이며, 백성들이 한밤에도 자지 않고 음모를 꾀하는 도시라고 선언(2장) 이 모든 것은 백성에 대한 야훼 하느님의 요구를 알려고 하지 않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선포(3장)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칠 리 없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 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수풀 언덕이 되리라.”

남왕국의 예언자

이사야와의 차이점

마지막날 시온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 신탁을 선포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

다윗 왕조와 다윗 도성의 번영을 해석한 신명기적 관점 안에서 다윗의
계약 신학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음

메시아에 관련된 구원선포도(5,2-6) 새로운 통치자가 태어날 곳이
예루살렘 궁중이 아니라 다윗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이라고 선언

이집트 탈출을 역사의 중심으로 삼고(6,1-8), 광야의 계약 신앙을
근간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해석-성장과 출신 배경이 이사야와 다르다.